

##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 I.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sup>2</sup>	G D P	1,883억 달러(2014년)
인구	92.6백만 명(2014년)	1인당 GDP	2,034달러(2014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D)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21,372.5(2014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섬유·의류제품과 전자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총리, 국가주석, 당서기장 등 권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금융기관 부실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1995년 ASEAN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관련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e</sup>
경제성장률	6.4	6.2	5.2	5.4	5.5
재정수지 / GDP	-2.8	-1.1	-6.8	-5.6	-6.6
소비자물가상승률	9.2	18.7	9.1	6.6	5.2

자료: IMF.

#### □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4년 5.5% 성장 추정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영기업과 은행부문 부실화 문제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5%대에 머물러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 수출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음.
-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5.2%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은행권의 소극적 대출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동화 평가절하 등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4%로 회복되었음.
-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 및 물가 안정세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년에는 5.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 시현 추정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동화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에는 통화량 축소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9.1%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평가절하 조치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도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 소비심리 위축으로 6.6%까지 둔화되었음.
-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 법인세 인하, 인프라 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원유 생산 등 세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로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인프라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8%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동 비중이 5.6%로 감소하였음.
-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국영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간 지분 교차보유 제도 등 제도적 허점으로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부문 진출에 대규모 대출이 지원되었으나, 진출 실패로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이 동시에 부실화되었음.
- 2014년 11월 Fitch는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최대 우발채무가 각각 베트남 GDP의 26%, 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및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상장기업에 준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 완화, 부실자산관리기관 설립 등을 시행함.
- 2013년 7월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을 전담하는 베트남 자산운용회사(VAMC)가 설립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금 확충 및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 베트남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도 2014년 1월부터 상향조정\*되었음.

\* 외국기관: 10%→15%, 전략적투자자: 15%→20%

- 복잡한 승인절차, 제한적 매각규모에 따른 투자자 유치 실패 등으로 국영 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VAMC의 자본금 부족, 회계기준 강화 유예 등으로 은행권 건전성 제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2014년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은 143개사로 목표(200개사)를 하회하였으며, 2014년 9월말 비핵심사업 매각액 누계는 약 4.5조 동 수준으로 목표의 21% 수준에 불과함.
- VAMC는 2014년 10월말까지 약 90조 동(약 42억 달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자본금은 5천억 동(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SBV는 정부에 자본금을 2조 동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함.
- 공식적인 베트남 은행산업의 부실채권(NPL)비율은 2013년말 3.61%에서 2014년 10월말 3.87%로 상승하였으나, SBV와 Fitch는 국제기준 적용시 동 비율이 각각 9%,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한편, 금융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강화된 회계기준 적용시점은 2015년 4월로 연기되었음.

#### □ 열악한 인프라가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81위로, 도로(104위), 항만(88위), 항공(87위), 전기공급(88위) 부문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전국적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배전망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며 운송비 부담도 높음. 특히, 육상운송이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여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비효율 상존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에서 베트남은 31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5개국 중 필리핀(85위), 중국(100위), 인도네시아(107위)보다 낮은 119위로 평가됨.
- 반부패법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부패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14. 10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업 경영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78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사업 개시, 조세납부 관련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나. 성장 잠재력

### □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당분간 3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4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예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연소득이 8,500달러 이상인 베트남의 중상류층 인구가 2014년 12백만 명에서 2020년 33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속 증가로 저임 노동력 풍부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저임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 고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직업교육 및 전문 학교와 대학교에 공공재원을 대폭 투입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2012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자본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IMF는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2011년 46.7%에서 2013년 51.6%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9년까지 지속되어 동 비중이 60.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공공부채 중 외채 비중은 GDP의 26~27%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채무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양허성차관 비중 감소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베트남은 공공부채 한도 설정,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 등 공공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베트남 국회는 GDP의 65%를 공공부채 한도로 설정하였으며, 유가하락, 원유 생산량 정체 등으로 원유 관련 재정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실적 개선, 과세행정 효율화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등의 과세 실적은 최근 개선되고 있음.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으로 통화·환율정책을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경제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2011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SBV는 재대출금리를 연 9%(2011년초)에서 연 15%(2011.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킴.
-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SBV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재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연 7%로 조정하였고, 2014년 3월에도 50bp 추가 인하를 단행함.
- SBV는 수출 촉진 및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2013년과 2014년 6월 동화 가치를 각각 1% 평가절하 하였으며, 2015년 1월에도 1%의 동화 가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비함.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e</sup>
경 상 수 지	-4,276	236	9,062	9,471	7,753
경 상 수 지 / GDP	-3.7	0.2	5.8	5.5	4.1
상 품 수 지	-5,136	-450	9,885	8,730	9,429
수 출	72,237	96,906	114,573	132,135	149,837
수 입	77,373	97,356	104,688	123,405	140,408
외 환 보 유 액	12,054	13,128	25,161	25,481	38,074
총 외 채 잔 액	44,923	53,072	59,119	65,461	68,553
총외채잔액/GDP	38.8	39.2	37.9	38.2	36.4
D. S. R.	2.3	3.9	3.6	3.6	3.4

자료: IMF, WB 및 EIU.

□ 상품수지 개선에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1% 수준 추정

-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베트남의 상품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됨.
- 2012년에는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전자 및 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8%로 상승하였음.
- 2013년에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외국인투자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87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2014년에는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 호황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94억 달러로 증가하지만,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1%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12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25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5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법인세율 인하 등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8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4년에는 투자유치 정책 유지, 베트남-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11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381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외채비중 및 D.S.R. 모두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0년 이후 36~3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1년 3.9%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여 2014년에는 3.4%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1년 지도부 교체 시 불협화음은 없었으며, 향후 지도부 교체는 2016년에 예정되어 있음.
- 당서기장은 보수파인 응웬 푸 쑹,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쑤언 쩐 상이 선출되었으며,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쩐 중이 유임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민주적 절차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베트남 공산당은 언론 통제 강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신설, 유명 반체제 블로거 체포 등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 사회동향

#####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베트남의 지니계수와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각각 1999년 0.39, 7.6배에서 2010년 0.43, 9.2배로 확대되었음. 또한,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7.2%, 도시 지역은 5.4%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22.1%, 소수민족은 59.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베트남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199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7월 미-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발표되었음.
- 2010년 베트남-미국 간 군사정책대화가 최초로 개최되고, 2012년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방문시 양국 군사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군사관계 역시 긴밀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정치범·종교인에 대한 억압,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취약한 베트남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관계 강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 반중시위 확대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표출로 대중 관계 악화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 제3위 투자국이나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으며,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2009년 확정되었으나 해상 국경의 경우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임.
- \* 분쟁지역: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및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자체에 대한 영유권(중국 정부의 9개 점선을 연결한 소위 'U자형 수역' 내 영유권)
- 중국 해군선박의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 절단, 분쟁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나포 및 발포에 이어 2014년 5월 중국이 분쟁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개시하자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확대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었음.
- 밀접한 경제 관계 등을 감안하여 반중 시위 전후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해상영유권 분쟁 해결이 어려워 양국간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 ASEAN 국가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

- 베트남은 1995년 ASEAN의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음. AFTA 발효 및 2015년 ASEAN 경제공동체(AEC) 발족 추진 등 ASEAN의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보유

-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양호함. 다만, 최근 소득 증가에 따른 양허성원조자금의 순유입이 감소하면서 총외채 대비 양허성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0%에서 2013년 47% 수준까지 급락하였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 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2014년 11월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였음.
-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는 2010년 23년에서 2013년 25년으로, 평균 금리는 2010년 2.3%에서 2013년 1.8% 수준으로 하락하여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5. 2)	C1 (2014. 2)
OECD	5등급 (2014. 6)	5등급 (2013. 6)
S&P	BB- (2012. 6)	BB- (2010. 12)
Moody's	B1 (2014. 7)	B2 (2012. 9)
Fitch	BB- (2014. 11)	B+ (2014. 1)

- OECD는 2014년 6월 CRE(Country Risk Expert) 회의에서 국영기업 개혁과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지연 등을 감안하여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5등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S&P는 2010년 12월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하향 조정 하였으나, 2012년 6월 물가상승률 둔화,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함.

-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경상수지 개선, 은행 부문의 위험도 경감 등을 감안하여 Moody's는 2014년 7월, Fitch는 2014년 11월 베트남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2에서 B1,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함.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2003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문화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범죄인인도조약(2005년)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5,946	21,088	22,333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5,719	7,175	7,989	의류, 신발, 목재류
합 계	21,665	28,263	30,322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는 2009년 9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2012년 217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에는 303억 달러에 달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 투자는 2014년말 기준 3,515건, 11,228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5.4%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년 경제 성장률은 5.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년도 9.1%에서 크게 하락한 6.6%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5.2% 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5.6%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법인세 인하, 인프라와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동 비중이 6.6%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5.5%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가 악화되면서 동 비중이 4.1%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하는 등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36.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외채의 80%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외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최근 3%대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